IBM 보고: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기업의 생존 위한 필수 요소...하지 않을 경우 위험 초래

- 기업 리더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하지 않을 경우 위험 초래할 것이라 응답

서울, **2020**년 **10**월 **8**일 – 기업 리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IBM 최근 조사 결과 지난 10 년 간 약 6 개월 동안 기업 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기업 리더 대부분은 디지털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66%는 디지털화 덕분에 기업 생존이 가능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디지털화 추세가 기업 생존에 있어 ‘필수’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지난 2년 간 디지털화 및 자동화 투자 증가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디지털화 덕분에 직원 간 협업 및 소통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74%는 디지털화 덕분에 직원들이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80%는 업무 효율성,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인해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 38%만이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80%는 업무 효율성,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인해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46%만이 업무 시간 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2개국 20개 업종에 걸쳐 총 3,800명 이상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IBM 비즈 임팩트 컨설팅 “[삭제] 디지털화 가속” 팀이 실시했다, 이 팀은 기업이 디지털화 추세를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컨설팅은 이 조사를 통해 각 기업 리더들이 디지털화 추세 속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IBM 비즈니스 임팩트 컨설팅 마크 포스터(Mark Foster)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 리더 대부분은 디지털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언급, “기업 리더 대부분, 디지털화 추세가 기업 생존 및 성장 측면 중요 요소 중 하나, 기업 내 디지털화 추세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을 언급.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화 가속화 추세에 따라 기업 내 IT 부서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IT 부서 역할 변화 등.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전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IT 부서 역할 변화 17%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IT 부서 역할 변화 2 배 이상 증가, 향후 2년 내 더 많은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IT 부서 역할 변화 예상.

기업 리더 대부분 디지털화 추세 **AI,** 클라우드 등 필수 요소로 인식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리더 대부분은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리더 대부분은 디지털화 추세 덕분에 AI, 클라우드 등 기술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 내용 2년 전,

- AI 기술 도입률 20% 증가 (현재 기술 도입, 28%)
- 업무 자동화 기술 도입률 60%로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술 도입률 증가, 등 등 기술 덕분에 업무 효율성 향상 등 등 업무 자동화 기술 도입률 증가.
- 업무 자동화 기술 도입률 76%로 증가 업무 효율성 향상 기술 도입률 증가 (현재 기술 도입, 71%). 또한 업무 자동화 기술 덕분에 업무 효율성 등 증가.

IBM는 디지털 트랜스, AI, 클라우드 등 기술 등 등 등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업무 자동화 기술 도입률 증가 등 등 등 업무 효율성 향상 등 등 등 업무 자동화 기술 도입률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B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B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2□** □□□ □□□□ □ □□□ □□□ □□□□□ □□□□ □□□ □□□□ **.**
- **2□** □□□□ □□ □□□□ **1%□□** □□□ □□□ □□□ □□□□□ **.** □□□ □ □□□ **21%□** □□□□, **2** □ □□□ **58%□** □ □□□ □□□□ **.**
- □□ □□□□ **81%□** □□□□ □□□ □□□□ □□□ □ □□□ □□□ □□□□□ □□□ □□□□ □□□ □□□□ **, 73 %□** □□□ □□□, □□□ □□□ □□□□ □□□ □□□ **.**
- □□ □□□□ □□ □□□□ □□ □□□ □□ □□□ □□ **12%□□ 2□** □ **39%□□ (+27%p)** □□□ □□□, □□□ □□ □□ □□□□□ □ □□□ □□ **66%□□ 2** □ □ **83%□□17%p** □□□ □□□ □□□□ **.**
- □□ □□□□ **AI□** □□□□□ □□ □□ □□□ □□ **26%□□ 2022□ 54%□ 2□** □ **28%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3□**), □□□□□(**2.3□**), □□□(**2.1□**) □ **R&D (2.4□)**□□ □ □□□ □□□□ **.**

IBM □□ □□ □□□□ □□□

IBM □□ □□ □□□(IBV)□ □□ □□□, □□□□ □□ □ □□□□ □□ □□□ □□□ □□ □ □□ □□□□ □□□□ □□□ □□□□□ □□□□ □□ □□□ □□□□ □□□ □ □□ □□□□ □□□□ □□□□. IBV □□ □□□ □□□□□□□ □□, □□ □ □□ □□□ □□ □□□□ □□ □□□ □□□□ □□ □□, □□□□ □ □□ □□, □□□ □□□□ □□□□ □□. □□□□□ @IBMIBV□ □□□□□□ www.ibm.com/ibv□□ □ □□□ □□ □□□ □□ □ □□.

# # #

---

https://kr.newsroom.ibm.com/announcements?item=122638